"올림픽 스타 모십니다"… 방송가 '러브콜'

안산, 지상파 메인뉴스 출연
펜싱 사브르팀, 예능 출격
여서정 등 대중 관심 쏠려

안산

펜싱 사브르팀

여서정

'2020 도쿄올림픽' 폐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올림픽을 빛낸 한국 대표팀 스타 선수들을 향한 방송가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가는 뉴스를 비롯해 각종 예능프로그램 등에 도쿄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선수들을 섭외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양궁 3관왕'을 차지하며 '금의환향'한 안산 선수는 지상파 메인 뉴스와 라디오 등에 출연하며 반가운 얼굴을 비쳤다.

안산 선수는 지난 4일 SBS '8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것은 물론 양궁 대표팀의 맏형 오진혁 선수와 KBS '뉴스9'에 출연해 올림픽을 마친 소감과 뒷이야기 등을 전했다. 또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도 출연했다.

이른바 '안산 신드롬'을 일으킨 안산 선수는 예능가의 섭외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15곳에 달하는 예능프로그램들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메달 4개를 획득한 양궁 대표팀도 섭외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림픽 경기 내내 큰 목소리로 "파이팅"을 에너지 넘치게 외친 막내 김제덕 선수가 화제가 됐다. 다만 김제덕 선수는 백신을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맞아 자가격리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주간 자가격리된다.

도쿄올림픽 중계로 인한 결방 등으로 한동안 휴업 상태였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예능프로그램들이 특히 분주하다. 올림픽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그 화제성에 섭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예능 첫 타자로 나선 건 도쿄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쥔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다. 잇따라 예능프로그램 출연 소식을 알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김정환, 구본길, 오상욱, 김준호 선수는 오는 8일 방송되는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한다. 녹화는 이미 지난 3일에 진행됐으며 여홍철, 한유미, 최병철 해설위원도 출연했다.

또 JTBC 예능 '아는 형님' 녹화를 마쳤고, 오는 14일에 방송된다. 티캐스트 E채널 예능 '노는브로2' 녹화도 완료했다.

SBS 예능 '집사부일체'에도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출연한다. 이날 SBS에 따르면 다음 주 촬영을 진행하며, 오는 15일 방송될 예정이다.

또 메달을 2개 획득한 체조도 섭외 물망에 오른다. 한국 체조 올림픽 사상 두 번째 금메달을 거머쥔 남자 기계체조 도마의 신재환 선수와 한국 여자 기계체조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을 쓰게 된 여자 도마 동메달 여홍철의 딸 여서정 선수가 있다.

아쉽게 메달을 얻진 못했지만 새롭게 올림픽 스타로 발돋움한 선수들도 방송가에서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4위에 올랐지만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육상 높이뛰기의 새 역사를 쓴 우상혁 선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년 뒤 파리 올림픽을 더 기대하게 하는 '뉴 마린보이' 수영의 황선우 선수와 '스타킹'·'무한도전'에 출연해 탁구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탁구의 신유빈 선수 등 유망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여자배구 대표팀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4강전을 앞두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배구의 김연경 선수 등도 올림픽을 마친 후 예능으로 시청자들을 만날지 기대를 모은다. '갓연경', '식빵 언니' 등 별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김연경 선수는 이미 MBC '나 혼자 산다',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에 출연해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친근하다.

이 밖에도 방송사들은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이 흘려온 땀과 사연 등 선수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올림픽으로 화제가 되고 새로운 스타가 나온 만큼 방송사들은 섭외 1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새로운 스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올림픽으로 검증된 스타"라며 "시청자들도 많이 응원하며 관심이 높은 만큼 화제성도 있고 새로운 얼굴이기에 섭외에 적극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조광희, 파이널B서 5위

카약 1인승 200m서 최종 13위

한국 카누의 간판 조광희(28·울산시청)가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카약 1인승 200m에서 최종 13위에 올랐다.

조광희는 5일 일본 도쿄 우미노모리 수상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1인승 200m 파이널B에서 36초440을 기록해 5위를 차지했다.

파이널A에 진출한 선수들을 포함해 최종 13위로 대회를 마쳤다. 자신의 첫 올림픽이었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작성한 12위의 성적을 넘어서지 못했다.

앞서 벌어진 준결승에서 조광희는 2조 6위에 머물러 준결승 각 조 상위 4명에게 주어지는 파이널A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 4일 벌어진 2라운드 경기에서 3조 1위를 차지해 준결승에 오른 조광희는 파이널A에 오르지 못하면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격차를 실감했다.

조광희는 자신의 첫 올림픽이었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1인승 200m와 2인승 200m에서 모두 준결승까지 오른 바 있다.

당시에도 파이널A까지 오르지는 못한 조광희는 1인승 200m에서 최종 12위, 2인승 200m에서 최종 9위에 자리했다. /뉴시스

"이렇게 창피하다고, 어?"… 여자핸드볼 감독 음박 논란

스웨덴전 질타 중계화면에 포착… SNS 등서 비난 '봇물'

대한민국 여자핸드볼 대표팀 강재원 감독이 경기 도중 선수들에게 음박을 질러 논란이 일고 있다.

강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4일 일본 도쿄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스웨덴과 '2020 도쿄올림픽' 여자핸드볼 8강전에서 30-39로 패했다.

강 감독은 스웨덴 선수들에 밀리자 작전 타임을 불렀다. 선수들에게 "창피한 일이야! 야, 창피한 일이야. 한국 핸드볼이 이렇게 창피하다고, 어?"라며 질타했다.

이 모습은 중계화면에 포착됐고, SNS 등을 통해 퍼졌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이 영상을 공유하며 "세계인이 보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런 폭언을 감독이라는 사람한테 들었다"며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카메라 있는데서도 저런데 카메라 없으면 얼마나 더 심한건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1만1000회 이상 공유됐다. 좋아요는 3260개 이상 받았다.

트위터에는 '핸드볼 감독'이라는 주제로 글이 3만 여 건 이상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핸드볼 감독 영상 보고 나니… 지휘의 인성이 팀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옛날 코칭 방식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선수들 이름이나 좀 외워라" "지휘를 하랬더니 작전 타임에 선수들에게 음박만 질러대고 열정과 좋은 분위기, 흐름, 기세 전부를 꺾어버리는 게 감독이냐. 팀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고 자질이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감독이 '저 정도 질책은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재원이 핸드볼계에서 레전드인데 저 정도도 못 하느냐" "정신력 끌어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처방으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칭찬만 하면 감독이냐 응원단이지" 등이다.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세계 남녀 핸드볼 통틀어서 처음으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 8강 진출국 중 비유럽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012 런던올림픽 4강 이후 9년 만에 8강에 올랐지만, 준결승 진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되게 어려운 대회였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유럽과 아시아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진 것 같다. 신장과 모든 면에서 우리 선수들보다 빠르다"며 "우리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후반전에는 젊은 선수들을 테스트 해봤다. 결과를 떠나 경험을 쌓게 해줬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못했다. 2012년 런던 때와 비교하면 거의 30~40% 밖에 안 됐다. 선수들의 부상이 많아서 체력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이 부족했다"며 "모든 게 감독 책임이다. 8강에 올라서 목표는 달성했는데 우리 수준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분야별로 분석해서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죄송하다. 감독이 잘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 /뉴시스

'언택트 천사마라톤대회' 성료

레이스 완주 1인당 1만원 기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5일 NH농협은행(장기요 본부장), 전북은행(권오진 부행장), ㈜KT(류평 본부장) 및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동수 회장)와 함께 '언택트 천사마라톤대회'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언택트 천사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레이스 완주자 1인당 1만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후원 목표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후원금은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각 1,000만원, ㈜KT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언택트 천사마라톤대회'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제공하고자 대회 참가비 없이 개최하는 비대면 마라톤 대회다.

6월 1일~30일까지 대회를 진행한 결과 총 838명이 완주했다. 대회 종목별, 연령별 입상자 397명에 대해 7월 비대면 방식으로 시상했다.

송하진 위원장은 "언택트 천사마라톤대회 참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기부해 준 NH농협은행, 전북은행, KT에 깊이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올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 공모 선정

전북체육회, 국비 3500만원 확보

전북체육회는 2021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 공모에 선정, 약 3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다문화가정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빙상·스쿼시 종목을 제공,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진안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관내 청소년들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업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주말(토요일)에 이뤄지며, 전문강사와 책임(보조)강사가 빙상과 스쿼시 종목을 강습한다. 강습 횟수는 총 12회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회당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30명(종목별 15명)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하계 종목을 체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연경 이름으로"·"팀코리아" 터키 산불피해 묘목 기부 행렬

여자배구 8강전 끝난 후 SNS 통해… 인증샷도 쏟아져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이 끝난 후 SNS를 통해 터키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한국 네티즌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5일 SNS에는 해시태그 'prayforturkey'와 함께 대규모 산불 피해가 난 터키를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김연경' '팀코리아' 이름으로 터키에 묘목을 기부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트윗은 2만회 이상 리트윗됐고, 수많은 이들이 기부에 동참했다.

기부 안내 방법과 함께 인증샷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김연경 선수 이름으로 나무 20그루를 기부했다" "김연경 이름으로 묘목 5그루 기부했다. 형제의 나라 터키를 응원한다"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터키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터키 산불이 빠르게 진압 돼 모두가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란다" "6.25 전쟁 때 터키가 한국을 도와줬다. 그 계기로 터키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이제는 한국이 도와줘야 할 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전날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터키와의 8강전에서 3-2(17-25 25=17 28-26 18-25 15-13)로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2012 런던올림픽 4위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4강에 진출했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후 45년 만에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김연경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28점을 기록해 승리를 이끌었다.

에다 에르덤과 김연경.

터키 대표팀 주장인 에다 에르뎀은 경기 전 인스타그램에 "산불 진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터키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남겼다. 패배 후 "한국은 준결승에 오를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며 축하했다.

터키는 지난달 28일 남부 안탈리아주부터 시작된 대규모 산불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산불로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8개 지역에서 3219가구, 1만6603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배구연맹, 여자배구에 추가 격려금 1억원 지급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여자배구 대표팀에 당근이 날아들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5일 여자배구 대표팀에 기존 계획한 포상금 외 1억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VO는 당초 이번 대회에 출전한 여자배구 대표팀에 금메달 5억원, 은메달 3억원, 동메달 2억원, 4위 1억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여자배구 대표팀이 2012 런던대회 이후 9년 만에 4강 진출 쾌거를 달성하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을 고려해 구단과 뜻을 모아 1억원을 더 주기로 했다.

조정된 포상 금액에 따라 여자배구 대표팀은 금메달 6억원, 은메달 4억원, 동메달 3억원, 4위 2억원을 받게 됐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 '이변의 중심'에 있다.

대회 전 세계랭킹이 14위에 불과했던 여자배구 대표팀은 도미니카공화국, 일본을 차례로 꺾고 8강에 진출한데 이어 세계랭킹 4위 터키마저 풀세트 접전 끝에 누르고 4강에 안착했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6일 오후 9시 브라질과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다툰다. /뉴시스